

관점취하기 초점이 외집단에 대한 동맹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초점과 정서-초점의 비교

도 은 별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고지위 집단 구성원이 저지위 외집단 구성원의 관점을 취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정서에 초점을 두는 것(정서-초점 관점취하기)과 생각에 초점을 두는 것(인지-초점 관점취하기)이 동맹행동 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장면에서 차별을 받는 또래 여성 대학생의 관점을 취하게 하였다. 연구 1(N = 80)과 연구 2(N = 81)를 통해 정서-초점 관점취하기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보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동맹행동 의도를 높이며, 이 효과를 성차별 문제에 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이 매개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집단 간 공감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장래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관점취하기, 동맹행동, 개인적 관련성, 집단 간 지각

[†]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지위 집단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차별의 대상인 저지위 집단 구성원들이 실행하는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van Zomeren & Iyer, 2009), 저지위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집단 간 차별을 해소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현대 사회의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문제 등에서 보듯이 많은 경우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은 고지위 집단의 지위 형성 및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집단 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지위 집단의 지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고지위 집단의 지지와 참여, 즉 동맹행동(allyship, Drogendyk et al., 2016)이 필수적이다. 이는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해 미국에서 촉발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Black Lives Matter' 운동이나 여성 및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Women's March'가 흑인이나 여성들만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백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과 남성들의 지지 및 지원과 함께 전개되었음을 통해 알 수 있다(Just & Muhr, 2019; Melaku et al., 2020). 한국에서 2000년에 시작된 '서울퀴어문화축제' 역시 성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지지하는 이성애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조수미, 2019). 이러한 일부 긍정적인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고지위 집단 구성원들은 저지위 집단이 겪는 차별을 직접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저지위 집단이 처한 곤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흔하다. 뿐만 아니라 동맹행동은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고, 궁극적으로 기존 집단 간 지위 관계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지위 집단 구성원들이 저지위 집단을 위한 동맹행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동한다(Curtin & McGarty, 2016). 따라서, 고지위 집단 구성원의 동맹행동을 촉진하는 심리적 조건을 규명하는 작업은 집단 간 관계에 관한 학술연구는 물론 사회심리학의 현실 적용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집단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감을 다룬 선행 연구를 토대로, 집단 간 공감과 동맹행동의 관계를 조명한다. 집단 간 관계에서 공감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외집단 구성원들의 곤경에 대한 관점취하기(perspective-taking)는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관점취하기란 대상자의 심리 상태를 인식하는 과정으로(Davis, 1983; Parker & Axtell, 2001), 외집단에 대한 명시적 태도(예: Batson et al., 1997; Dovidio et al., 2004)와 암묵적 태도(예: Todd et al., 2011; Todd & Burgmer, 2013)를 개선하고, 집단 간 차이 및 차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며(예: Todd et al., 2012),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도움행동 의도를 높인다(예: Shih et al., 2009). 특히, 고지위 집단의 구성원이 차별받는 저지위 외집단 구성원의 관점을 취할 때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행동 의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백인 대학생들이 흑인 차별에 대한 글을 읽을 때 흑인의 관점을 취한 조건에서 통제 조건보다 캠퍼스 내 흑인 차별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의도가 높았으며(Mallett et al., 2008),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인터뷰를 보고 그들의 관점을 취한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기부하려는 의도를 보였다(Batson et al., 2002).

이처럼 집단 간 관계에서 관점취하기가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으며 관점취하기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로 이어지는 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이에 대한 개관은 다음을 참조: Bloom, 2017; Todd & Galinsky, 2014; Vorauer, 2013).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집단 간 관계에서 관점취하기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를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성차별 문제에 주목하여, 남성이 관점취하기를 통해 차별받는 여성에 대해 공감할 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초점, 즉 공감 대상자의 정서에 초점을 맞춘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대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를 비교하여 두 가지 초점이 성차별 해소를 위한 남성들의 동맹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점취하기 초점: 정서 대 인지

관점취하기의 초점을 조작하여 각 초점의 고유한 효과를 연구한 실험실 연구에서는 지시문을 활용하여 해당 상황에서 대상자가 어떤 정서를 경험하고 있을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추론하도록 유도하였다(이에 대한 개관은 Batson & Ahmed, 2009 참조). 선행 연구에서 다른 관점취하기 초점은 정서-초점과 인지-초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초점 관점취하기란 대상자의 정서 또는 감정에 대한 추론을 의미한다(Enright & Lapsley, 1980; Rothenberg, 1970).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서-초점 관점취하기는 타인이 겪는 부당함에 대한 민감성(Decety & Yoder, 2015), 영유아가 느끼는 공감적 우려 및 피해자에 대한 우려 및 도움 행동(Vaish et al., 2009), 청소년의 표정 인식 정확도(Lui et al., 2016) 등을 예측하였다. 반면에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는 대상의 생각 또는 신념에 대한 추론을 의미한다(Kurdek, 1978).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의 논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고유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josvold & Johnson, 1977).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뇌 신경영상 분야에서 주로 보고되었다.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는 뇌의 같은 부위를 활성화하기도 하지만, 각자 다른 부위를 활성화하기도 한다(이에 대한 개관은 Healey & Grossman, 2018 참조). 예를 들어, Völlm 과 동료들(2006)은 참가자들에게 만화를 보여준 뒤, 주인공이 다음에 할 만한 행동을 고르거나(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주인공이 더 기분이 좋아질 만

한 행동을 고르게 했다(정서-초점). 연구 결과,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와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모두 내측전전두엽(mPFC)과 측두부 접합(TPJ) 부위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조건에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편도체(amygdala)와 전측 및 후측 대상피질 등이,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에서는 가치 판단에 관여하는 안외전두피질(OFC)과 언어 능력, 기억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측두엽(STG)이 추가로 활성화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에서만 정보에 의거한 논리적 판단과 관련 있는 배외측 전전두피질(DLPFC)이 활성화됨을 확인하였다(Kalbe et al., 2010).

이에 더해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가 서로 다른 심리기제를 수반하며, 그에 따라 전반적 친사회적 행동에도 차별적 효과를 지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에서 활성화된 편도체와 후측 대상피질은 옥시토신의 수용체를 포함하며(Boccia et al., 2013), 후측 대상피질의 옥시토신을 제한할 경우 도움 행동이 저하된다(Yamagishi, Lee, & Sato, 2020). 반면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에서 활성화된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개인적 이익에 대한 고려와 통제와 연관이 있어서 상호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불공정한 제안에 대한 거절에 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noch et al., 2006). 이러한 결과들은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가 서로 다른 심리기제를 수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취하기의 효과에 관한 사회심리학 분야의 대다수 선행 연구에서는 두 초점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들이 아는 한 공감 대상의 정서에 초점을 맞춘 관점취하기와 인지에 초점을 맞춘 관점취하기가 외집단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 차이가 존재하는 집단 간 관계에서 고지위 집단의 구성원들의 저지위 집단에 대한 관점취하기에서 두 가지 초점이 차별적 효과를

지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관점취하기 초점과 동맹행동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관점취하기에서 정서-초점과 인지-초점을 비교한 일부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정서-초점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에 비해 표적에 대한 이타적 행동을 촉진한다. 이와 직접 관련된 한 연구(Oswald, 1996)에서 참가자들이 곤경에 처한 인물에 대해 정서-초점 관점취하기를 한 조건에서,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를 한 조건보다 대상 인물에 대한 도움 행동 의도가 높았고, 이 효과는 대상인물에 대한 공감적 관심에 의해 매개되었다. 이는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에 비해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가 표적에 대한 공감을 촉진하는 데 유효성이 크고, 그에 따라 대상 인물에 대한 이타적 동기를 촉발함을 시사한다. 관점취하기의 두 초점은 협상과 같은 혼합동기(mixed-motive) 상황에서도 차별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alinsky, Maddux, Gilin, & White(2008)는 쌍방의 이해 관계를 수반하는 협상 상황에서 협상 상대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교감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촉진하는 반면, 협상 상대에 대한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는 관점취하기를 하는 당사자의 이익도 같이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선택을 유발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가격을 협상해야 하지만 서로의 이익이 양립할 수 있는 협상 상황을 구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협상 행동을 관찰하였다. 실험(연구 2) 결과, 참가자들이 협상 상대의 생각 및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관점취하기를 했을 때(예: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협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관점취하기를 했을 때보다(예: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협상을 하는 동안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하

십시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러한 협상 결과에 대한 상대방의 만족도는 낮았다.

차별받는 집단 구성원의 관점을 취함으로써 변화된 태도는 해당 집단으로 번짐효과(spreading effect)를 지닌다는 주장을 고려해볼 때(Batson et al., 1997), 대인 간 관점취하기 상황에서 보고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집단 간 관계로 확장하여 추론해보면 흥미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집단 간 관계에서 고지위 내집단 구성원이 저지위 외집단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관점취하기를 할 경우, 외집단에 대한 친사회적 동기가 유발되고, 이에 따라 곤경에 처한 저지위 외집단에 대한 동맹행동이 증진될 수 있다. 반면에,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는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에 비해 외집단의 이익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집단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유발되고, 이에 따라 곤경에 처한 저지위 외집단을 도우려는 이타적 동기보다는 내집단의 상대적 고지위를 유지하려는 이기적 동기가 수반되어 동맹행동 의도가 정서-초점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조건에서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보다 저지위 집단에 대한 동맹행동 의도가 강하다.

개인적 관련성의 매개 역할

집단 간 공감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외집단이 겪고 있는 곤경에 대해 공감자가 개인적 관련성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표적에 대한 공감이 촉진되고(Tropp & Barlow, 2018),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 의도를 증진하여(Wright, Brody, & Aron 2005) 긍정적 집단 간 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표적이 처한 곤경 상황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은 공감자에게 친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정서 경험을 통해 표적에 대한 도움 행동을 촉발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일례로, Basil, Ridgway, & Basil(20

08)의 연구에서 자신이 집이 없는 아이의 입장이라고 상상함으로써 해당 상황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을 강하게 지각한 미국인들은 집 없는 아이들이 처한 곤경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고, 이를 매개로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 의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감 상황에서 표적에 대한 관점취하기가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표적에 대해서 공감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거리가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예: Erle & Topolinski, 2017; Myers & Hodges, 2013).

앞에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저지위 외집단이 처한 곤경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이 집단 간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로부터 외집단에 대한 관점취하기가 항상 외집단의 곤경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을 유발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사회정체성이론(Tajfel & Turner, 1979)에 따르면 내/외집단 구분이 특출한 상황에서는 개인적 정체성보다 사회적 정체성이 우세하게 발현되고, 이는 대인 심리보다는 집단심리에 기반한 사고와 행동을 촉발한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을 내/외집단 구성원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집단 간 지각(intergroup perception)은 전형적으로 내집단 선호 및 외집단 차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Ellemers & Haslam, 2012).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 간 지각에 따른 외집단 차별이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최소집단 패러다임(minimal group paradigm; Tajfel et al., 1971)에서 내집단에 강하게 동일시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내집단에 외집단보다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외집단 차별적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강하다(Gagnon & Bourhis, 1996). 이를 집단 간 공감 장면에 적용하면, 곤경에 처한 대상자를 외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감의 순기능이 발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과 관련된 증거는 집단 간 공감에서 내집단 동일시의 방해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Tarrant, Calitri & Weston(2012)은 영국 대학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측정된 후, 외집단인 다른 학교 학생의 관점을 취하거나(관점취하기 조건), 아무런 관점도 취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통제 조건) 외집단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관점취하기 조건에서 참가자들의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외집단에 대한 기술에서 부정적 특징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이 효과는 통제 조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내집단과 외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간 경쟁 상황에서는 곤경에 처한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공감보다는 오히려 외집단의 역경을 즐거워하는 마음(schadenfreude)이 유발되기도 한다(예: Cikara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은 집단 간 상황에서 관점취하기를 할 때 집단 간 지각이 외집단에 대한 공감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관점취하기 초점에 따른 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점취하기에서 인지 초점과 정서 초점이 유발하는 심리기제에 착안하여, 관점취하기 초점에 따라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이 달라지리라고 가정한다. 인지-초점 관점취하기가 이기적 동기를 유발함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Galinsky et al., 2008; Oswald, 1996)의 맥락에서 추론해보면,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에서 관점취하기 당사자는 자신과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구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집단 간 관계로 확장해볼 때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는,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에 비해, 대상자를 외집단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집단 간 지각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내집단에 비해 외집단에 대해 지각된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Liberman et al., 2007),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는,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에 비해, 외집단의 곤경에 대한 관련성 지각을 촉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관점취하기 초점과 외집단에 대한 동맹행동 의도의 관계를

공감자의 개인적 관련성 지각이 매개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관점취하기 초점과 동맹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고지위 집단 구성원이 지각하는 개인적 관련성이 매개한다.

는 동맹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가 집단 간 동맹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관점취하기 조작이 없는 통제 조건을 연구에 포함했다.

연구 개관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가 저지위 집단을 위한 동맹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연구1과 2에서는 남자 대학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장면에서 차별을 받는 여자 대학생에 관한 글을 실험 조건에 따라 특정 관점을 취해 읽도록 하였다. 이후 기업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할 의도를 동맹행동 의도로 측정했다. 연구 1에서는 두 관점취하기 초점과 통제 조건이 한국의 여성 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 그리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동맹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관점취하기 초점 조작 방식을 보완하여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의 차별적 효과를 비교하고 개인적 관련성의 매개효과를 반복검증하였다. 연구는 모두 대학 기관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수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R(v4.0.3; R Core Team, 2020)을 활용하였으며, 매개 분석에는 mediation package(v4.5; Tingley et al., 2014)를 사용하였다.

연구 1

연구 1은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가 여성차별 문제에 대한 남자 대학생의 개인적 관련성 지각과 성차별을 해소하려

방법

연구대상 및 설계

각 조건당 최소 20명 이상의 참가자를 얻어야 한다는 제안(Simmons, Nelson, & Simonsohn, 2011)에 따라 탈락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모집할 참가자 수를 조건 당 30명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진학 중인 남학생 91명이 심리학 연구참가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1원 참가자간 설계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n = 29$), 인지-초점 관점취하기($n = 28$), 그리고 통제 조건($n = 34$)에 참가자들을 무선 배정하였다. 예비 실험에서 등장인물의 관점을 취하면서 시나리오를 읽고 이해하는 데 최소 10초 이상 소요됨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실험에서 시나리오를 읽는 데 10초 미만이 걸린 11명의 참가자를 제외하여 8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 제외에 따른 종속 변수에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참가자들의 학년은 1학년 21명(26.3%), 2학년 9명(11.3%), 3학년 24명(30%), 4학년 이상 26명(32.5%)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각 조건 당 참가자 수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절차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본 연구가 대인 태도 및 인식에 관한 연구라고 안내받았다. 정서-초점(인지-초점) 관점취

하기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앞으로 제시될 특정 상황에 관한 글을 읽을 때, 등장인물(A)의 정서(생각)에 초점을 두고 글의 내용을 읽도록 하였으며(참조: Oswald, 1996; Stotland, 1969), 통제 조건에서는 선행 연구(Batson et al., 1997; Wang et al., 2014)에서 보고된 방식을 적용하여 글의 내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하였다. 정서-초점(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작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글을 읽을 때, 글에 등장하는 상황에서 인물 A가 어떤 정서를 느낄 것 같은지(생각을 할 것 같은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마음에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관점이 아닌 A의 관점에서, A가 그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낄지(생각을 할 지)에 최대한 몰입하며 글을 읽어주십시오.

통제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읽었다.

글을 읽을 때, 글에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A가 아닌 제 3자의 관점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글을 읽어주십시오.

참가자들이 해당 시나리오를 읽기 전, 본 과제와 무관한 짧은 글을 주고 관점취하기 지시문대로 글을 읽도록 하여 연습 과제를 실시했다. 연습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이사를 하는 A에 관한 글을 읽고, 실험 지시문에 따라서 해당 상황

에서 A가 어떤 정서를 느낄 것 같은지(정서-초점 관점취하기 조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지(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 또는 해당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통제 조건)를 작성하도록 안내받았다. 연습 과제에서 등장인물 A의 성별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연습 과제를 마친 후 참가자들에게 한 여자 대학생이 취업 면접에서 성차별을 받는 상황을 시나리오에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할당된 조건에 따라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A)의 생각 또는 감정 상태에 초점을 두고 관점취하기를 하거나 관점취하기 없이 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였다. 시나리오에서 성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나리오 전문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취업준비생 A씨(24, 여)는 수많은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인턴 경력도 쌓으며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해왔다.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보낸 결과 총 두 곳에서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첫 회사 면접에서, A씨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을 받게 되었다. A씨의 직무관련 능력과 경험에 대해 묻는 대신, 면접관은 애인의 유무부터 시작하여 결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묻은 뒤, 여사원들의 출산과 육아휴직이 회사에 큰 손해가 된다는 말로 면접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표 1. 관점취하기 조건에 따른 개인적 관련성 지각과 동맹행동 의도 평균 및 표준편차(연구 1)

종속변수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n = 25)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n = 24)		통제 (n = 31)		F
	M	SD	M	SD	M	SD	
	개인적 관련성 지각	3.68	1.40	3.13	1.24	2.45	
동맹행동 의도	3.50	1.45	3.00	1.73	2.40	1.61	3.26*

* p < .05, ** p < .01

시나리오를 읽은 다음 참가자들은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에 응답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실험을 종료했다. 연구가 종료된 후 참가자들은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실험참여점수를 부여받았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가정한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은 King(2005)에서 사용된 12개의 개인적 관련성 지각 문항 중 세 문항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0점 = 전혀 아니다 ~ 6점 = 매우 그렇다): “한국 사회의 성 평등을 구현하는 데 개인적 책임감을 느낀다”, “A가 겪은 상황은 나와는 관련 없는 일로 느껴진다(역)”, “A가 겪은 상황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느껴진다(역)”. 역문항들을 변환하여 세 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1$).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동맹행동 의도는 “한국 기업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청원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한국 기업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의향이 있다”의 두 개 문항(0점 = 전혀 아니다 ~ 6점 = 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했다. 자료 분석에는 두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Spearman-Brown $\rho = .93$; Eisinga et al., 2013).

결과 및 논의

Levene의 분산 동질성 검정 결과, 개인적 관련성과 동맹행동 의도 모두 조건 별 사례수가 다름에 따른 분산 동질성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각각 $F(2,77) = 0.26, p = .77, F(2,77) = 1.15, p = .32$. 참가자들의 학년과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r_s > .23$, 개인적 관련성 지각 문항과 동맹행동 의도 문항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78) = .62,$

$p < .001$. 각 조건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었다. 개인적 관련성과 동맹행동 의도 각각에 대한 관점취하기 초점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관련성 지각에서 실험 조건 간 차이가 유의했다, $F(2,77) = 5.91, p < .001, \eta^2 = 5.91$. 이에 대한 사후비교(Tukey's HSD) 결과, 공감 대상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관점취하기를 한 참가자들($M = 3.68, SD = 1.40$)은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M = 2.45, SD = 1.35$)보다 개인적 관련성을 강하게 느꼈다, $p < .001, d = 0.91$.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조건과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의 차이, 그리고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과 통제 조건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_s > .14$.

관점취하기 초점이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동맹행동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서도 실험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F(2,77) = 3.26, p = .04, \eta^2 = .07$. 사후비교(Tukey's HSD) 결과,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조건($M = 3.50, SD = 1.45$)에서 통제 조건($M = 2.40, SD = 1.61$)보다 동맹행동 의도가 강했다, $p = .03, d = 0.68$. 개인적 관련성 지각과 마찬가지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조건과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의 차이, 그리고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과 통제 조건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_s > .36$.

동맹행동 의도에서 관찰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통제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성차별 문제에 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개분석을 실행했다(5,000 bootstrap samples, 95% 신뢰구간). 분석에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는 1로, 통제 조건은 0으로 가변수화(dummy coding) 했다. 분석 결과(그림 1), 관점취하기 초점이 개인적 관련성 지각을 매개로 동맹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간접경로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서 가설 2와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b = 0.78, SE = 0.34, p = .02, 95\% CI [0.29, 1.39]$.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남성이 정서-초점으로 차별받는 여성의 관점을 취할 때, 표적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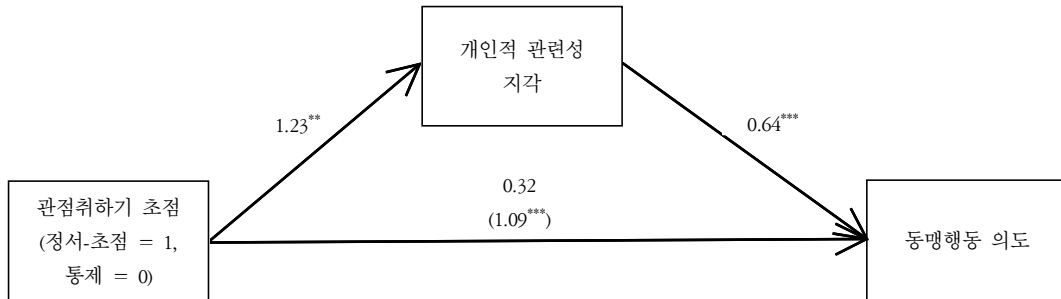


그림 1. 관점취하기 초점과 동맹행동 의도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의 매개효과(연구 1)

주. 모든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 ** $p < .01$, *** $p < .001$

을 취하지 않을 때보다, 직장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동맹행동 의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효과는 공감 대상자가 겪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남성 참가자들의 개인적 관련성 지각에 의해 매개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는 정서-초점 관점취하기는 성차별 문제에 관한 남성들의 개인적 관련성 지각을 촉진하고, 이는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동맹행동 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관된다. 그러나 연구 1에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간에는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아서 가설 1이 부분적으로만 지지가 되었다. 이 결과는 관점취하기 초점 조작 방식이 두 조건 간의 차이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히 민감한 방식이 아니었음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즉, 시나리오에 제시된 성차별 상황에서 여성 표적의 감정상태를 추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표적의 생각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처리가 필요했을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표적의 생각을 추론하는 과제가 정서를 추론하는 과제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예: Hynes et al., 2006; Kalbe et al., 2010). 따라서 단순히 관점취하기 지시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외집단에 대한 인지-초점 관점취하기가 유발하는 효과를 포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연구 2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두 가지 관점취하기 조

건을 직접 비교하고 연구1의 결과를 반복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참가자에게 공감 대상(A)의 정서, 또는 인지를 추론하여 직접 적도록 하는 과제를 실험 조작절차에 추가하여 공감 대상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교한 처리를 유도하였다. 이 방식은 관점취하기를 조작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예: Esses & Dovidio, 2002; Oswald, 2002). 연구 2의 목적이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의 조건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연구 1에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조건과 통제 조건의 차이가 유의했으므로 통제 조건은 실험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 1에서 사용한 동맹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시간, 돈 등의 개인적 비용이 낮은 집단 행동에 제한되어 있었으므로(Van Laer & Van Aelst, 2010), 비교적 개인적 비용이 높은 집단행동에 대한 행동 의도를 묻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집단행동 의도 문항을 확충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및 설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진학 중인 남학생 81명이 심리학 연구참가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1원 참가자간 설계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조건($n = 41$)과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n = 40$)에 참가자들을 무선 배정하였다. 공감 대상(A)의 정서 또는 생각을 추론하여 적게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는 데 10초 미만이 걸려 탈락한 참가자는 없었다. 참가자들의 학년은 1학년 50명(62.5%), 2학년 8명(10%), 3학년 8명(10%), 4학년 이상 14명(17.5%)으로 구성되었다.

절차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시나리오와 실험절차는 연구 1과 동일했다. 단, 관점취하기 초점 조작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나리오를 읽은 직후 참가자에게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황에서 등장인물(A)이 어떤 정서를 느낄지(어떤 생각을 할지) 추론하여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였다.

측정 도구

성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은 연구 1과 동일한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0점 = 전혀 아니다 ~ 6점 = 매우 그렇다), 자료 분석에는 역문항들을 변환해 총 세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2$). 성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동맹행동 의도는 연구 1에서 사용한 두 개 문항에 더하여, “한국 기업의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성차별 문제가 있는 기업의 건물 앞에서 단체 시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두 문항을 추가하여 총 네 문항이 사용되었다(0점 = 전혀 아니다 ~ 6점 = 매우 그렇다). 자료 분석에는 네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9$).

결과 및 논의

Levene의 분산 동질성 검정 결과, 개인적 관련성 지각과 동맹행동 의도 모두 분산 동질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각각 $F(1, 79) = 1.76, p = .18, F(1, 79) = 0.01, p = .90$. 참가자들의 학년과 개인적 관련성 지각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r(79) = -.14, p = .22$, 학년과 동맹행동 의도 간의 상관은 유의했다, $r(79) = -.23, p = .04$. 개인적 관련성 지각 문항과 동맹행동 의도 문항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79) = .77, p < .001$. 먼저 개인적 관련성 지각과 동맹행동 의도에 대한 관점취하기 초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조건($M = 4.89, SD = 1.27$)에서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M = 4.22, SD = 1.55$)보다 유의하게 개인적 관련성을 높게 지각했다, $t(80) = 2.11, p = .03, d = 0.47$. 또한 동맹행동 의도에 대해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초점 관점취하기 조건($M = 4.02, SD = 1.40$)에서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M = 3.35, SD = 1.48$)보다 성차별 해소를 위한 동맹행동 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t(80) = 2.08, p = .04, d = 0.46$.

동맹행동 의도에서 관찰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성차별 문제에 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개 분석을 실행했다(5,000 bootstrap samples, 95% 신뢰구간). 분석에서 정서-초점 관점취하기는 1로, 통제 조건은 0으로 가변수화했다. 분석 결과(그림 2), 예상대로 관점취하기 초점이 개인적 관련성 지각을 매개로 동맹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간접경로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가설 2와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b = 0.52, SE = 0.24, p = .03, 95\% CI [0.04, 1.01]$.

연구 2의 결과는 집단 간 관계에서 정서-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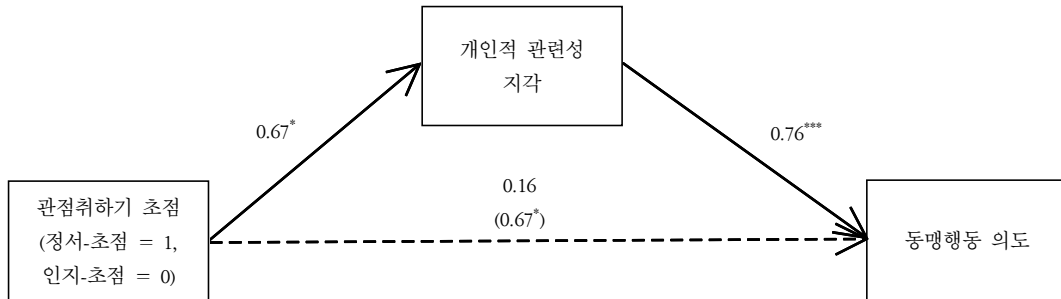


그림 2. 관점취하기 초점과 동맹행동 의도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의 매개효과(연구 2)

주. 모든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 * $p < .05$, *** $p < .001$

관점취하기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에 비해 공감의 순기능을 발현시키는 데 유효성이 크며 이러한 효과의 심리적 기제가 개인적 관련성 지각임을 시사한다. 이는 집단 간 관계에서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관점취하기를 할 때 정서-초점 관점취하기는 외집단에 겪는 곤경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을 더 강하게 촉발하고, 그에 따라서 외집단에 대한 동맹행동 의도가 높다는 가설1, 2와 일관된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관계에서 고지위 집단(남성)이 저지위 외집단(여성)의 관점을 취할 때 관점취하기 초점이 외집단에 대한 동맹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이 과정에서 외집단의 곤경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의 매개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정서-초점 관점취하기를 했을 때 통제조건보다 외집단에 대한 동맹행동 의도가 높았으며, 이 효과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남자 대학생들의 개인적 관련성 지각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연구 2에서는 정서-초점 관점취하기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에 비해서 외집단 구성원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동맹행동 의도를 높이며 이 효과가 해당 문제에 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에 의해

매개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는, 정서-초점 관점취하기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에 비해 이타적 동기를 강하게 유발하며, 그에 따라 외집단의 곤경에 대한 관련성 지각 및 동맹행동 의도가 증진된다는 본 연구의 가정과 일관된다.

관점취하기 초점에 따라서 표적이 처한 곤경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 및 행동 의도에 대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관점취하기의 효과를 다룬 사회심리학의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인지-초점과 정서-초점을 혼용하여 관점취하기를 조작한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지위차를 수반하는 집단 간 관계에서 두 가지 관점취하기 초점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연구자들이 아는 한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점취하기 초점과 집단 간 동맹행동 의도를 접목시켜 관점취하기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외집단의 곤경에 대한 지각된 관련성의 역할을 규명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본 연구는 공감에 관한 심리학연구에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들은 공감, 관점취하기, 마음 이론(theory of mind), 정신화(mentalizing) 등의 용어를 혼용하였고 정서-초점 관점취하기를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Healey &

Grossman, 2018). 이처럼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됨에 따라 유관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남녀 갈등 및 성차별 문제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김이선, 박경숙, 2019; 은기수, 2018),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성에 대한 공감을 통해 남성들의 성차별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예: Bongiorno et al., 2020; Simon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공감 과정에서 관점취하기 초점이 조절변수가 될 수 있으며, 여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대한 남성들의 개인적 관련성 지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성들의 관점취하기를 조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 편으로, 집단 간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외집단에 대한 공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외집단 구분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의 인지적 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Batson & Ahmad,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전 인지적 개입 없이 관점취하기 초점의 효과를 관찰했다는 점에서, 단순하면서도 유효한 개입전략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술적 및 실용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세 연구 모두 성별에 따른 집단 간 관계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남녀가 아닌 현실세계의 다른 집단 간 관계(예: 성적 지향성, 연령, 조직 위계)에서도 정서-초점 관점취하기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의 차별적 효과가 관찰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또한, 저지위에 있는 공감자가 고지위에 있는 공감자보다 상대에 대한 관점취하기를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예: Galinsky et al., 2006)에 착안하여, 저지위 집단 구성원(예: 여성)이 고지위 집단 구성원(예: 남성)의 관점을 취할 때 두 가지 관점취하기 초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

로운 연구문제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매개 변수로 상정한 개인적 관련성 지각은 공감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점취하기 초점과 동맹행동 의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선행 연구(Oswald, 1996)에서는 관점취하기 당사자가 느끼는 정서(예: 우려가 되는, 따뜻한, 공감적인, 연민적인, 인정 많은)를 공감적 관심으로 측정하여 정서-초점 관점취하기가 인지-초점 관점취하기보다 공감적 관심을 촉진함을 보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초점 관점취하기가 외집단에 대한 공감적 관심을 증진하여 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동맹행동 의도를 향상시키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황이 참가자들에게 남녀 집단 간 맥락으로 인식되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황이 취업 장면이며, 실험 참가자들이 20대 남자 대학생들이었음을 고려할 때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여성 참가자와 자신을 동등한 지위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한 시나리오에는 한 여성 지원자가 남성 면접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취업에 실패했지만 자기보다 자격이 부족한 남성 지원자는 합격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므로 참가자들이 이 상황을 특정 여성 개인의 고난이나 역경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성차별적 발언을 한 면접관이 남성이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여성 지원자보다 자격이 부족한 남성 지원자는 합격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므로 집단 간 갈등의 서사를 분명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가 남성 참가자들에게 실제로 지위 차이를 수반하는 남녀 집단 간 갈등 상황으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도은별: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집단 간 공감 및 집단 기반 정서, 집단 극화 등이 있다.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개인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 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번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이선, 박경숙 (2019). 한국 여성의 생애: 갈등적 성별화와 계층화. *경제와사회*, 122, 138-170.

조수미 (2019). 퀴어문화축제 공간의 상징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6(3), 209-272.

Basil, D. Z., Ridgway, N. M., & Basil, M. D. (2008). Guilt and giving: A process model of empathy and efficacy. *Psychology & Marketing*, 25, 1-23. <https://doi.org/10.1002/mar.20200>

Batson, C. D., & Ahmad, N. Y. (2009). Using Empathy to Improve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3, 141-177. <https://doi.org/10.1111/j.1751-2409.2009.01013.x>

Batson, C. D., Chang, J., Orr, R., & Rowland, J. (2002). Empathy, attitudes, and action: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motivate one to help the grou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656-1666. <https://doi.org/10.1177/014616702237647>

Batson, C. D., Polycarpou, M. P., Harmon-Jones, E.,

Imhoff, H. J., Mitchener, E. C., Bednar, L. L., Klein, T. R., & Highberger, L. (1997).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s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5-118. <https://doi.org/10.1037/0022-3514.72.1.105>

Bloom, P. (2017). *Against empathy: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Random House.

Boccia, M. L., Petrusz, P., Suzuki, K., Marson, L., & Pedersen, C. A. (2013).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oxytocin receptors in human brain. *Neuroscience*, 253, 155-164. <http://doi.org/10.1016/j.neuroscience.2013.08.048>

Bongiorno, R., Langbroek, C., Bain, P. G., Ting, M., & Ryan, M. K. (2020). Why women are blamed for being sexually harassed: The effects of empathy for female victims and male perpetrat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4, 11-27. <https://doi.org/10.1177/0361684319868730>

Cikara, M., Bruneau, E. G., & Saxe, R. R. (2011). Us and Them: Intergroup Failures of Empath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 149-153. <https://doi.org/10.1177/0963721411408713>

Curtin, N., & McGarty, C. (2016). Expanding on psychological theories of engagement to understand activism in context(s). *Journal of Social Issues*, 72, 227-241.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 - 126.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Decety, J., & Yoder, K. J. (2016). Empathy and motivation for justice: Cognitive empathy and concern, but not emotional empathy, predict sensitivity to injustice for others. *Social*

- Neuroscience*, 11, 1-14.
<https://doi.org/10.1080/17470919.2015.1029593>
- Dovidio, J. F., ten Vergert, M., Stewart, T. L., Gaertner, S. L., Johnson, J. D., Esses, V. M., Riek, B. M., & Pearson, A. R. (2004). Perspective and prejudice: Antecedents and mediating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1537-1549.
<https://doi.org/10.1177/0146167204271177>
- Droogendyk, L., Wright, S. C., Lubensky, M., & Louis, W. R. (2016). Acting in solidarity: Cross group contact between disadvantaged group members and advantaged group al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72, 315-334.
<https://doi.org/10.1111/josi.12168>
- Eisinga, R., Te Grotenhuis, M., & Pelzer, B. (2013). The reliability of a two-item scale: Pearson, Cronbach, or Spearman-Brow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 637-642.
- Ellemers N., & Haslam S.A. (2012). Social identity theory. In P. Van Lange, A. Kruglanski,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pp. 379 - 398). Sage
- Enright, R. D., & Lapsley, D. K. (1980). Social role-taking: A review of the constructs, measures, and measurement properti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 647-674.
<http://doi.org/10.3102/00346543050004647>
- Erle, T. M., & Topolinski, S. (2017). The grounded nature of psychological perspective-t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 683-695.
<https://doi.org/10.1037/pspa0000081>
- Esses, V. M., & Dovidio, J. F. (2002). The Role of Emotions in Determining Willingness to Engage in Intergroup Conta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202-1214.
<https://doi.org/10.1177/01461672022812006>
- Galinsky, A. D., Maddux, W. W., Gilin, D., & White, J. B. (2008). Why it pays to get inside the head of your opponent: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and empathy in negotiations. *Psychological Science*, 19, 378-384.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8.02096.x>
- Galinsky, A. D., Magee, J. C., Inesi, M. E., & Gruenfeld, D. H. (2006). Power and perspectives not taken. *Psychological science*, 17, 1068-1074.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6.01824.x>
- Healey, M. L., & Grossman, M. (2018).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Taking: Evidence for Shared and Dissociable Anatomical Substrates. *Frontiers in Neurology*, 9, 1624-1628.
<https://doi.org/10.3389/fneur.2018.00491>
- Hynes, C. A., Baird, A. A., & Grafton, S. T. (2006). Differential role of the orbital frontal lobe in emotional versus cognitive perspective-taking. *Neuropsychologia*, 44, 374-383.
- Just, S. N. & Muhr, S. L. (2019). "Together we rise": Collaboration and contestation as narrative drivers of the Women's March. *Leadership*, 15, 245-267.
<https://doi.org/10.1177/1742715018809497>
- Kalbe, E., Schlegel, M., Sack, A. T., Nowak, D. A., Dafotakis, M., Bangard, C., Brand, M., Shamay-Tsoory, S., Onur, O. A., & Kessler, J. (2010). Dissociating cognitive from affective theory of mind: A TMS study. *Cortex*, 46, 769-780.
<https://doi.org/10.1016/j.cortex.2009.07.010>
- King, K. R. (2005). Why is discrimination stressful?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appraisal.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1, 202-212.
<http://doi.org/10.1037/1099-9809.11.3.202>
- Knoch, D., Pascual-Leone, A., Meyer, K., Treyer, V., & Fehr, E. (2006). Diminishing reciprocal fairness by disrupting the right prefrontal cortex. *Science*, 314, 829-832.
<http://doi.org/10.1126/science.1129156>

- Kunda, Z., Davies, P. G., Adams, B. D., & Spencer, S. J. (2002). The dynamic time course of stereotype activation: Activation, dissipation, and resurr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283-299.
<https://doi.org/10.1037/0022-3514.82.3.283>
- Kurdek, L. (1978). Perspective taking as the cognitive basis of children's moral develop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Me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4*, 3-28.
- Lieberman, N., Trope, Y., & Stephan, E. (2007). Psychological distance. In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Vol. 2, pp. 353-383). Guilford Press.
- Lui, J. H. L., Barry, C. T., & Sacco, D. F. (2016).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empathy deficits: Mediating effects of affective perspective-taking and facial emotion re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30*, 1049-1062.
<https://doi.org/10.1080/02699931.2015.1047327>
- Mallett, R. K., Huntsinger, J. R., Sinclair, S., & Swim, J. K. (2008). Seeing through their eyes: When majority group members take collective action on behalf of an outgroup.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1*, 451-470.
<https://doi.org/10.1177/1368430208095400>
- Melaku, T. M., Beeman, A., Smith, D. G., & Johnson, W. B. (2020). Be a better ally. *Harvard Business Review, 98*, 135-139.
- Myers, M. W., & Hodges, S. D. (2013). Empathy: Perspective taking and prosocial behavior: Caring for others like we care for the self. In J. J. Froh & A. C. Parks (Eds.), *Activities for teaching positive psychology: A guide for instructors* (pp. 77 - 8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4042-013>
- Oswald, P. A. (199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on empathic concern and altruistic helping.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 613-623.
<https://doi.org/10.1080/00224545.1996.9714045>
- Oswald, P. A. (2002). The Interactive Effects of Affective Demeanor, Cognitive Processes, and Perspective-Taking Focus on Helping Behavior.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120-132.
<https://doi.org/10.1080/00224540209603890>
- Parker, S. K., Axtell, C. M., & Turner, N. (2001). Designing a safer workplace: Importance of job autonomy, communication quality, and supportive supervisor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6*, 211-228.
- R Core Team (2020).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Retrieved from <https://www.R-project.org/>
- Rothenberg, B. B. (1970). Children's social sensitivity and the relationship to interpersonal competence, intrapersonal comfort, and intellectual level. *Developmental Psychology, 2*, 335-350. <https://doi.org/10.1037/h0029175>
- Savitsky, K., Epley, N., & Gilovich, T. (2001). Do others judge us as harshly as we think? Overestimating the impact of our failures, shortcomings, and misha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44-56.
<https://doi.org/10.1037/0022-3514.81.1.44>
- Shih, M., Wang, E., Bucher, A. T., & Stotzer, R. (2009). Perspective taking: Reducing prejudice towards general outgroups and specific individual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 565-577.
<https://doi.org/10.1177/1368430209337463>
- Simmons, J. P., Nelson, L. D., & Simonsohn, U. (2011). False-positive psychology: Undisclosed flexibility i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llows presenting anything as significant. *Psychological Science, 22*, 1359-1366.

- <http://doi.org/10.1177.0956797611417632>
- Simon, S., Magaldi, M. E., & O'Brien, L. T. (2018). Empathy versus evidence: Does perspective-taking for a discrimination claimant bias judgments of institutional sexism?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2, 1109-1123. <https://doi.org/10.1177/1368430218818731>
- Stotland, E. (1969). Exploratory investigations of empath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 271-314. Academic Press.
- Tarrant, M., Calitri, R., & Weston, D. (2012). Social Identification Structures the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Psychological Science*, 23, 973-978. <https://doi.org/10.1177/0956797612441221>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S. Worchel (Eds.) *Organizational identity: A reader* (pp. 33 - 47). Brooks Cole
- Tingley D., Yamamoto T., Hirose K., Keele L., & Imai K. (2014). Mediation: R Package for Causal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59, 1-38. <http://www.jstatsoft.org/v59/i05/>
- Tjosvold, D., & Johnson, D. W. (1977). Effects of controversy on cognitive perspective tak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679-685. <https://doi.org/10.1037/0022-0663.69.6.679>
- Todd, A. R., & Burgmer, P. (2013). Perspective taking and automatic intergroup evaluation change: testing an associative self-anchoring accou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786-802. <https://doi.org/10.1037/a0031999>
- Todd, A. R., & Galinsky, A. D. (2014). Perspective taking as a strategy for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Evidence, mechanisms, and qualification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8, 374-387. <https://doi.org/10.1111/spc3.12116>
- Todd, A. R., Bodenhausen, G. V., & Galinsky, A. D. (2012). Perspective taking combats the denial of intergroup discrimi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 738-745. <https://doi.org/10.1016/j.jesp.2011.12.011>
- Todd, A. R., Bodenhausen, G. V., Richeson, J. A., & Galinsky, A. D. (2011). Perspective Taking Combats Automatic Expressions of Racial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1027-1042. <https://doi.org/10.1037/a0022308>
- Tropp, L. R., & Barlow, F. K. (2018). Making advantaged racial groups care about inequality: intergroup contact as a route to psychological invest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7, 194-199. <https://doi.org/10.1177/0963721417743282>
- Vaish, A., Carpenter, M., & Tomasello, M. (2009). Sympathy through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and its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in todd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5, 534-543. <https://doi.org/10.1037/a0014322>
- Van Laer, J., & Van Aelst, P. (2010). Internet and social movement action repertoires: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3, 1146-1171. <http://doi.org/10.1080.13691181003628307>
- van Zomeren, M., & Iyer, A. (2009). Introduction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dynamics of collective a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5, 645-660. <https://doi.org/10.1111/j.1540-4560.2009.01618.x>
- Völlm, B. A., Taylor, A. N. W., Richardson, P., Corcoran, R., Stirling, J., McKie, S., Deakin, J. F. W. & Elliott, R. (2006). Neuronal correlates of theory of mind and empathy: A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y in a nonverbal task. *NeuroImage*, 29, 90-98. <https://doi.org/10.1016/j.neuroimage.2005.07.022>

- Vorauer, J. D. (2013). The case for and against perspective-taking.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 59-115.
<https://doi.org/10.1016/b978-0-12-407188-9.00002-8>
- Wang, C. S., Kenneth, T., Ku, G., & Galinsky, A. D. (2014). Perspective-taking increases willingness to engage in intergroup contact. *PLoS ONE*, 9, e85681.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85681>
- Wright, S. C., Brody, S. M., & Aron, A. (2005). Intergroup contact: Still our best hope for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In C. S. Crandall, & M. Schaller (Eds.),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ssues* (pp. 115-142). Lewinian Press.
- Yamagishi, A., Lee, J., & Sato, N. (2020). Oxytocin in the anterior cingulate cortex is involved in helping behaviour. *Behavioural Brain Research*, 393, 112790.
<http://doi.org/10.1016/j.bbr.2020.112790>
- 1 차원고접수 : 2022. 01. 25.
수정원고접수 : 2022. 05. 16.
최종게재결정 : 2022. 05. 23.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Foci on Allyship Intention in An Intergroup Context: Comparison between A Thinking-Focus versus A Feeling-Focus

Eunbyul Do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the role of perspective-taking foci (i.e., feeling-focus vs. thinking-focus) in an intergroup context involving differences in social status (i.e., males vs. females). Building on previous research on intergroup empathy, we stipulated that, compared to those who take the perspective of an outgroup target (i.e., a female) with a feeling-focus, males taking the perspective of the target with a thinking-focus would experience stronger intergroup perceptions about the target. This heightened awareness of ingroup/outgroup distinction engendered by a thinking-focus in perspective-taking was expected to lower the perceived personal relevance of gender inequality on the part of a male perspective-taker, leading to weak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allyship behavior for females. In Study 1 (N = 80) and Study 2 (N = 81), we asked 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to take the perspective of a female target experiencing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 either by focusing on what she might be thinking or how she might be feeling in such a situation. We then asked the participants to indicate the perceived personal relevance of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 and their intention to engage in allyship for females. Results indicated, as expected, that allyship intention was weaker in the thinking-focus condition than in the feeling-focus condition, and this effect was mediated by the perceived personal relevance of the issue.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perspective-taking, allyship, personal relevance, intergroup perception

부 록

부록 1. 시나리오 전문

취업준비생 A씨(24, 여)는 수많은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인턴 경력도 쌓으며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해왔다.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보낸 결과 총 두 곳에서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첫 회사 면접에서, A씨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을 받게 되었다. A씨의 직무관련 능력과 경험에 대해 묻는 대신, 면접관은 애인의 유무부터 시작하여 결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 물은 뒤, 여사원들의 출산과 육아휴직이 회사에 큰 손해가 된다는 말로 면접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어진 두 번째 회사 면접은 A씨의 적극적인 태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나 동료가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A씨가 ‘매뉴얼 대로 회사 내 관련 기관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하자, 면접관들의 표정은 곧바로 굳어졌다.

대망의 합격 발표 날 A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하였지만, 다시 한 번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같은 날, A씨는 자신과 스펙이 비슷하고 학점은 더 낮았던 남자 과 선배는 같은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자신이 떨어진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